

EPR 대상품목 확대 및 협회 발전 책임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제3대 신임 회장 선출



김 석 수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회장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 3대 회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지난 3년 동안 한국플라스틱 자원순환협회 2대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정수용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회장은 “그 동안 매립이나 소각 되어 오던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재가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재생원료나 연료로 다시 재활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의 중심에 협회가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짐과 동시에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석수 신임회장은 정수용 회장의 임기인 8월 2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행보를 가질 전망이다.

이에 김 회장은 임기동안 추진할 4대 목표를 내세웠다.

먼저 EPR 대상품목의 확대이다.

김 회장은 “식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6개 분류 외에도 EPR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확대 측면에서 EPR 대상품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폐플라스틱의 연료화 사업의 활성화.



▲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가 임시 총회를 열고 김석수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품연료를 시멘트공장
과 일부 염색공장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척하겠다는 것.

또한 김회장은 “협회가 재활용제품 개발과 판매
확대에 앞장서서 재활용업체를 발전시키고 의무
생산자들의 부담도 경감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2003년부터 시행된 ‘생
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조기정착과 저비용·고
효율의 플라스틱재활용 공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협회를 지속적으로 혁신시켜 경쟁력을 키
워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사)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는 자원의 절약
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재활용의무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2년에 설
립됐다. 김 회장은 “경기불황과 고유가 등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사 대표 및
협회 임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
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회원사들의 지속적인 관
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재 김석수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자원공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후 동서
유지(주)와 (주)동서의 대표이사를 거쳐 동서식
품(주)의 부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ko]

이한얼 기자